

국립경주박물관 특강 신라의 불교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정병조 명예교수

신라는 삼국통일 후 고구려·백제 민족을 포용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론을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 수용했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시대 불교는 사상적·문화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 동국대 정병조 명예교수는 7월 11일 국립경주박물관서 '신라 불교의 이상과 전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명예교수는 불교사상이 전파되고 정착돼 퇴락해 이르기까지 신라 불교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고승들의 삶을 되짚었다. 정 명예교수는 "통일 전후의 신라 불교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사상 풍토였다. 군주들의 불교관이 건전하였고 국민들의 믿음 형태 또한 매우 건강하였다"며 "인도에서 파생한 불교가 해동에서 사상적 회향을 이루는 한국 문화의 황금기"라고 평가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신라불교, 국민정신 구심점으로 우뚝 서다”

불교의 도입과 정착

신라는 그 지정학적 여건과 권력 체제의 낙후성 때문에 삼국 중 가장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전대미문의 찬연한 문화적 독창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동력이 바로 위대한 대승 불교 정신의 현실적 응용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이상을 관념화시키지 않았고 적절한 현실 타개의 방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신라 불교는 백제나 고구려가 하향적 수용 형태인데 반해 다분히 상향적 특징을 가집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는 왕실에서의 적극적인 수용과 전교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에는 강력한 반발의 흔적이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선 이차돈의 순교를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민간 신앙과의 마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불교의 도입에는 세 사람의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목호자, 이차돈과 법흥왕은 각각 상이한 신분을 지녔지만 신라 불교 공인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분들입니다. 목호자의 삼보 해석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는 서역 승려였지만 상당한 수준의 사상가였습니다. 이차돈과 법흥왕의 굳센 신심은 이후 한국 불교의 파사현정 기개를 가능하는 좌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차돈의 순교는 정법 수호와 보살 정신의 현양이라는 한국 불교의 중심적 사상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D 527년 불교가 공인된 직후 우리는 지명과 각덕, 명관의 활약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세 분은 구법의 선봉으로서 대규모의 불경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의 정착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열렬한 신심과 함께 병렬한 이성적 뒷받침입니다. 즉 불교적 논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두 분은 매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라 불교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은 역시 원광(531~630)과 자장(?)입니다. 그들이 활약했던 시기는 삼국의 대립과 정복 전쟁이 가장 되던 때였습니다. 진흥, 진평, 선덕, 진덕 등 역대 제왕들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함께 국민정신의 응결이라는 주요한 과제를 완수하려 했습니다. 원광의 세속 오계, 결사표, 점제보 결성 등은 모두 그와 같은 시대정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세속 오계는 결코 화랑들에게 지시되었던 행동 규범 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백성과 왕실의 정신적 공감대를 이루는 지주였으며 국민 도의를 불교적으로 혼성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한편 자장의 경우에는 원광과 원효, 의상을 잇는 사상적 가교의 역할을 이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광이 입적했을 때 원효가 불과 13세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배웠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원효나 의상이 자장으로부터 직접 배웠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자장 역시 화엄 사상의 도입, 중국식 관료 체제의 도입, 승통으로서의 활약 등 원광과 대동소이한 사상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극적 최후로 말미암아 그 사상성이 반감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승니의 기강을 확립하고 화엄적 세계관을 정착시킨 점 등은 매우 뛰어난 업적입니다. 그는 진실한 구도자였으면서도 근엄한 성품과 귀족적 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광과 자장이라는 두 거목 밑에서 원효, 의상 등 뛰어난 사상가가 배출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고구려의 해량이나 신라로 귀화한 사제입니다. 그는 신하 화랑 거칠부와의 기이한 인연 때문에 신라로 귀순하였지만, 최초의 승통으로서 신라 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 그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인왕백교와 도량이나 팔관

불교 수용 당시 반발 흔적도

통일 후 현실 타개위해 적용

“불교문화 융성한 태평성세”

회 등은 고려 때까지 왕실의 가장 중요한 법외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혁 노력의 결실로서 불교는 서서히 신라 사회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불교 사상의 신라적 전개

불교가 신라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시기는 진흥왕의 집권 후반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라 불교의 개화기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7·8세기였습니다. 7·8세기의 신라 고승들에게는 두 가지의 중대한 사상적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첫째는 통일을 향한 불교적 이데올로기의 제시로,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정신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즉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통일 이후의 사상적 책무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즉 상층부는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분열과 대립 대신에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를 호렷했던 위대한 고승들 가운데서 단연히 주목을 모으는 인물은 원효(617~686)와 의상(620~702)입니다. 원효는 신라 불교의 으뜸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반야·유식·법화·화엄·정토 등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상을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회통하는 탁월한 안목과 실천력을 지녔습니다. 또 원효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대중 불교의 지향입니다. 그는 이미 신라 사회에 일기 시작한 귀족 불교의 풍조를 통



동국대 정병조 명예교수는 7월 11일 국립경주박물관서 '신라 불교의 이상과 전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불교가 권력층의 정권 유지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거나 인과적 윤리 의식이 패배적 숙명론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육두품 출신이었다는 점과 함께 대안, 해공, 사복 등 반체제적 성격이 농후한 이들과 각별한 교분을 유지했다는 점 등은 그 풍모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의상은 원효와 비교해 볼 때 극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화엄종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부석사 등 화엄집찰의 건립, 낙산사 창건에서 보이는 대로 불국사 사상의 현양 그리고 정토 사상의 구현 등 매우 학술적이면서도 차분한 일생을 마칩니다.

특히 의상은 화엄 사상의 전파에 그 일생을 건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화엄경>의 육상원용을 국가적 이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에 전체와 개인은 불가분일 수밖에 없다는 철학적 성찰이 곧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명저 <화엄일승법계도>는 바로 그 철학적 토대와 실천적 의지를 집대성한 저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이 원효처럼 현실 비판이 집요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 신분과 성품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화엄 사상을 국가의 이익과 결부시키는데 일조를 했지만 소위 어용적 형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자적 고결한 인품과 빼어난 신심성이 그를 고결하고 외연하게 살도록 만든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의 탁월한 사상성에 의하여 신라는 통일과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일 전후의 신라 불교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사상 풍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주들의 불교관이 건전하였고 국민들의 믿음 형태 또한 매우 건강하였습니다. 인도에서 파생한 불교가 해동에서 사상적 회향을 이루는 한국 문화의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신라 하대의 불교

경덕왕의 시대는 불교 사상의 만개기였습니다. 불국사, 석불사, 영묘사 등 굴지의 대찰들이 건립되었고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문화적 융성의 태평성세였습니다. 통일 이전의 신라 불교 사상은 주로 미륵 사상과 관음 신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주로 미타 신앙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은 역시 사회적 안정 추세 속에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하대에서의 특징적 경향 가운데 하나는 천축 구법의 여정입니다. 다행히 그 이름과 저술을 남긴 혜초 이외에도 아리야발마·현태·구법·해업 등 많은 구법승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교학적인 면으로 볼 때 신라 사회의 주류는 화엄학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라 고승들은 화엄에 대한 연구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화·유식·밀교 등이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9세기 이후부터는 선종이라는 새로운 조류가 신라 불교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종은 육조혜능(663~713)의 남종선 계통이 주종을 이룹니다. 최초의 선종 도입은 법남으로 부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덕 여왕 때 당나라에서 사조 도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도의가 또한 남종선을 전해옵니다.

그러나 선사상은 신라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확립되는 것은 역시 고려 중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라 하대의 불교는 기울어져 가는 국운처럼 퇴락의 기미를 보입니다. 고려 정부는 명백히 지방 호족들의 세력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 말엽의 불교계 동향은 고려 정부의 수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전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